

음성 가이드 : 운젠의 역사

운젠의 역사는 행각 중이던 승려 교기(行基)가 만묘지를 세운 701년부터 시작됩니다. 이어지는 몇 세기 동안 이 절의 존재가 운젠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. 실제로 1500년대 후반 산속의 절이나 신사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산 주민의 대부분은 불교 승려였습니다.

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산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른쪽에 삼도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.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건너는 강입니다. 건너는 곳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. 운젠을 ‘지옥’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이름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.

현재의 운젠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중 하나로 유명하며, 지역의 자연미와 역사를 미래에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을 즐기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1934년 지정된 운젠 국립공원(현: 운젠 아마쿠사 국립공원)은 이 ‘지옥’ 같은 경관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